



5면

한국대학드론스포츠포럼의회  
전주에서 공식 출범

# 전주매일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음 6월 2일) 제25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도지사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21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형 뉴딜'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로당·노인복지관 운영 재개  
도, 코로나 확산방지 점검강화

전북도는 지난 20일부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이들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도내 노인복지관이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으로 재개했으며, 같은 날 김제·남원·임실 지역 경로당이 문을 열었으며, 다음 주부터는 도내 나머지 시군이 운영을 재개해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 기능을 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자 지정과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비치했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및 경로당 내 식사제한 등 시설 내 방역지침 준수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약 5개월간 굳게 닫혔던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다시 문을 열면서 활기찬 지역 어르신들의 모습과 함께, 스스로 방역지킴이가 돼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하며 지난 20일부터 2주 후인 8월 3일에는 2단계 실내 프로그램 확대, 이후 위기 경보 수준이 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되었을 때 3단계로 시설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유호상기자

/유호상기자

## 차별화된 '전북형 뉴딜' 해법찾기

도·政·전문가 등 머리맞대 그린뉴딜 방향성 모색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 확대 개편, 사업 발굴 시동

전북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에너지 전환포럼, 전북연구원 등의 공동 주최를 통해 21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에서 '전북형 뉴딜'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국회의원, 도내 외 전문가, 관련 공무원(중앙부처, 도, 시, 군) 등의 지혜를 한데 모으기 위해 준비됐다. 2025년까지 지속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에 개최돼 그 의미가 크다.

현재 도는 지난 5월 28일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구성 산 학, 연 전문가 참여를 통해 100여건, 총사업비 1조 4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 성경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자연과 인간이 생태적으로 공존 하는 '생태문명 시대'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에 적극 대응하는 전북형 뉴딜 정책 수립은 전북도 미래발전의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중호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 등 3명의 발표자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사단법인 에너지 전환포럼의 공동대표인 홍중호 교수는 "그린뉴딜과 코로나19 경제 위기극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전환이며 이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연구원은 "그린뉴딜과 지방자치단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에 따라 전북도의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정책에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연구위원이 '대전환적 뉴딜 대도약 하는 전북'이라는 주제로 "지역 차원의 특화된 영역

을 고려한 전북형 뉴딜의 지향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최된 종합토론에서 윤성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사업 과장은 에너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상훈 환경부 그린뉴딜TF팀 과장은 "그린뉴딜은 비용이 아닌 '자신'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금융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원식 도 정책기획관은 "전북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단기와 중장기적 투트랙(Two Track) 방식의 전략을 추진 중이다"면서 "전북형 그린뉴딜은 '생태문명의 대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녹색생태 자원활용의 3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은재 전북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무처장은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00%를 초과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그린수소와 RE100의 메카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ktv, NAVER TV, Dd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송주빌딩5F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21일 민선7기 공약사업평가단 회의를 열고 76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목표 대비 97.9%, 임기 내 목표 대비 누적 추진율 55.37%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사업평가단은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 민선7기 전주시가 추진해 온 경제·문화·도시·공동체·복지 등 5개 분야 76개의 사업을 점검, 8개의 완료사업과 68개의 진행사업이 정산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약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평화동 한바탕

## 김승수 시장, 공약이행 '순항'

전주시, 임기 내 목표 대비 누적추진율 55.37%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 또한 전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덕진공원 명품화 사업 등 나머지 사업들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사업추진단은 "각각의 공약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마당 운영, 설문조사, 공청회,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중시한 면이 돋보인다"면서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시는 이달 중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i.gov.kr)를 통해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주시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민선7기 하반기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